

코스콤, 블록체인 활용한 비대면 전자주총 플랫폼 구축

»» 프레스룸

금융IT 발전을 위한 코스콤의 다양한 활동들을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

DID를 활용한 주주 증명을 토대로 온라인 주주투표 플랫폼 구축

주주들의 주권행사 편의성 향상과 투표 투명성 동시에 확보

한국인터넷진흥원, DID집중사업으로 “DID 주주증명기반 비대면 전자주총” 선정

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민 실생활에서 블록체인 기술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 중 하나로 “DID 주주증명기반 비대면 전자주총”을 선정. 정부의 디지털 뉴딜 종합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초 총 15개 과제를 우선 선정

② DID 주주증명기반 비대면 전자주총 플랫폼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보유한 코스콤이 국내 최고 온라인투표 전문기업인 한국전자투표와 컨소시엄을 통해 구축. 코스콤의 블록체인 플랫폼과 한국전자투표의 주주투표 플랫폼을 결합해 공동사업 형태로 추진.

③ 코스콤의 블록체인 플랫폼과 ‘이니셜 DID’를 통해 주주임을 확인하는 주주증명을 발급하면, 위변조가 불가능한 주주증명을 휴대폰에 저장한 뒤, 본인 확인 후 주주투표 플랫폼에 접속해 주권 행사 가능

DID기술 확대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늘어날 듯

① 이번 비대면 전자주총 시스템으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져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현재 약 700여개 상장사에서 전자 주총 플랫폼을 사용 중이며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② 코스콤 관계자는 “비상장주식거래 플랫폼 비마이 유니콘에 이어 DID를 활용한 전자투표 서비스까지 블록체인 기술이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바꾸어 가고 있다” 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힘

③ DID(Decentralized Identifiers)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 신원자격증명 플랫폼으로 신원증명과 자격증명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발급·검증할 수 있어 향후 종이증명서와 각종 인증서

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 이중 ‘이니셜 DID’는 코스콤과 SKT, 5대 은행 등 총 14개사가 참여해 가장 많은 금융사들이 사용하는 공동 서비스

④ ‘이니셜’은 다양한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해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전자증명서 30종을 발급할 수 있고, 100종의 공공증명서를 보관하는 등 정부기관과의 제휴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대학 제증명 발급·제출 및 고려대 모바일학생증 발급, SK텔레콤의 고객센터 서류 제출 등 다양한 제휴처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